

# 쿼터품 수입자 공개입찰 선정기로 수급조절 운영 규정 변경, 배정도 5개 단체만

한약재 수급조절품목의 수입자 선정방법이 각 단체별 재량에 의해 선정하던 종전과 달리 수급조절 소위원회를 통한 공개적인 입찰형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적정한 품질의 견본을 확정한 다음 견본을 공개공람 후 입찰공고를 거쳐 수입자를 선정하는 방법. 소위원회는 위원 중 수입, 유통, 소비자, 제조자 등을 대표하는 위원 9명으로 구성기로 했다. 또한 쿼터품 배정도 생산자단체를 포함 9개 관련단체에 일괄배정하던 기존과 달리 소비자 5개단체(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약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한약품공업협동조합) 회원에게만 배정된다. 이는 제41차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오미자 30톤, 적하수오 27톤, 천마 27톤, 백하수오 90톤을 수입결정하는 한편, 수입자선정과 통관기간, 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 위임기로 함에 따라 지난 5월25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된 것.

회의결과에 따르면 수입자 자격은 수입·도매업을 겸한 자 또는 수입 제조업을 겸한 자로서 해당 협회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개별위원2인, 소비자단체(한의사협회, 한약협회, 대한약사회, 한방병원협회, 한국제약협회)를 대표하는 한약재 수급조절위원 5명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여 수입대상 견본을 확정한다.

입찰에 응하고자 하는 자에게 수입 대상 한약재 견본을 1~2일간 공개공람한 후 10일 이내 언론에 입찰공고를 거쳐 최저가 입찰에 의해 수입자를 선정한다는 것이다.

물량배정은 수입자가 5개 소비자단체(한의사협회, 한약협회, 대한약사회, 한방병원협회, 한국제약협회) 회원에 각 단체별 20% 범위내에서 공급기로 하고 수입원가(제세공과금+절단비용+포장비용+감모량비용+운송비+배송비용 및 창고료 등 기타비용을 포함한 가격)와 수수료(수입원가의 10%)를 포함 판매가를 산정기로 했다. 단, 수입관

매가격은 소비자단체에서 확인한 가격으로 하며, 판매가 산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품목별 판매가는 동일 품목에 대한 수입자별 판매가격을 합한 후 평균한 가격으로 한다.

제41차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수입결정된 오미자, 백하수오, 적하수오, 천마 수입자는 10개 업소를 선정하게 되며, 신청마감 및 입찰일은 오는 15일 15시까지이다. 통관 완료일은 오미자, 백하수오, 적하수오는 오는 7월31일, 천마는 8월30일 까지이다.

한편 백하수오는 국내산 전량 수매조건으로 수입 승인됐다.

## 제천약초 '생산 증명제' 도입 엄격한 품질관리와 선별포장

충북 제천시에서 생산되는 약초에 '생산 증명제'가 도입된다. 시와 관내 약초 재배농가, 약초 상인들은 최근 제천약초의 명품화를 위해 우수성을 보증하고 약초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전량 리콜하는 '생산 증명제'를 도입, 시행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외국산 약초가 국내 약초 시장을 급격하게 잠식하면서 위기에 처한 제천약초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재배농가와 상인들은 실명제를 도입, 약초 포장재에 생산자의

주소와 성명, 전화번호, 재배면적, 생산량 등을 표시해 출하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이 지역 1천여 약초 재배농가들은 신뢰도 확보와 품질인증을 위해 엄격한 품질관리와 선별포장을 하고 생산자 조직에서는 자체적으로 품질 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제천 지역에서는 421.6ha에서 황기와 당귀, 황정, 홍화, 두충 등의 약초를 재배, 연간 957t을 생산하고 있으며 서울 경동시장과 대구 약령시장 등에서 국내 최고의 한약재로 인정을 받고 있다.

## 대구시 검단동에 한방벨리 조성

대구시 북구 검단동에 한방벨리가 조성된다.

문희갑 대구시장은 17일 "350년 전통의 대구약령시를 활용, 한방과 첨단바이오산업이 접목된 한방벨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최근 △물류단지 예정지 중 고속도로 북편 △검단공단내 유성모직 땅 △패션어패럴 벨리 등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모색한 결과, 물류단지 예정지가 가장 후보지로 적절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규모는 초기에 3만평 정도로 시작해 장기적으로 이용가능한 면적인 30만평까지 확대할

방침이며 취약한 재정여건을 고려, 일부기반시설에 대해국비지원을 요청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선분양-후보상 방식으로 시비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시는 한방벨리에 생약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집중 입주시키고입주업체에 대해서는 바이오전문펀드를 조성해 지원하고 원가수준에 용지를 공급기로 했다.

입주업체의 연구지원을 위해 LG화학 연구소 등 우수 바이오 연구시설을 끌어오는 한편 서울대 천연물연구소, 식약청 등 각종 한약재 규격 인증기관들도 대거 유치해 한약재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시는 한방벨리 내 건강테마파크와 주변 패션어패럴 벨리를 연계할 경우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일대에 한의학의 발달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통 한의학 박물관'이 건립된다.

전주시는 15일 전주 전통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완산구 풍남동 3가 일대 354㎡에 총 25억여원을 들여 전통한옥 양식의 1층짜리 한의학 박물관을 건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박물관에는 한의학 역사 및 관련서적, 의약기(침), 한약재, 약초사진 등이 전시되는 전시실과 한의학 교육 및 체험공간, 한의원 등이 마련된다. 시는 실

## 전주시 전통 한의학 박물관 건립

시설계 용역이 나오는 연말께 공사에 들어가 2002년 9월 완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주 전통한학을 전승·발전시키기 위해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며 "전주는 한때 대구와 함께 조선시대 2대 약령시장으로 명성을 떨칠 정도로 전통 한의학의 중심지였다"고 말했다.

## 자생식물 2천종 정보제공 사이트 등장

우리나라 산천에서 나는 자생식물 2000여 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등장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업체 세미르는 국내 자생식물 정보를 학술적·교육적으로 정리한 전문 포털사이트 '보토크(www.botoko.com)'를 개설했다.

특히 각 식물마다 학명 분포지 특기사항 종의 유용성 등을 사진과 함께알려주므로 현장감 있는 학습은 물론 생소한 식물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구성했다. 또한 식물이야기 재배법 약용식물 생태사 진화영역 등 식물과 관련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 북한 생약농업 단신

### 산수유 질경이 등 재배 한약재 수출

북한은 최근 재배한 한약재를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이 최근 전했다. 북한은 지난 80년에 4~5월과 9~10월을 '약초재배 월간'으로 정한 이후 집중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한약재를 각지의 병원과 제약공장에 공급하는 한편 "일부를 여러 나라들에 수출하고 있다"고 중앙통신이 밝혔다.

중앙통신은 그러나 수출국과 수출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각지에 설치된 약초관리소와 약초자원보호증식사업소는 한약 재배지에 질경이, 산수유 등 다양한 한약재를 심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지황, 단삼, 백작

## 지황, 단삼, 백작약도 많이 생산

약, 울무 등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고 중앙통신은 소개했다.

보건성 고려약생산관리국 박영진 처장은 이번 '약초재배 월간'에는 '수전정보'의 한약재 재배지에 약초와 약용나무를 심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은 덧붙였다.

### 북한, 약초증산에 실속있는 대책 촉구

북한은 최근 봄철 약초재배월간(4~5월)을 맞아 고려약(한약) 생산의 기본원료가 되는 약초증산을 위해 약초심기와 재배, 채취, 보관사업 등의 성과적인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계획과 대책을 강

구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기관지 '청년전위' 최근호(4.24)는 약초재배 월간사업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약초심기를 비롯한 재배, 채취, 관리와 관련한 계획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면서 각 도 인민위원회와 보건기관의 역할과 실속 있는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청년전위'는 각급 인민위원회와 보건기관에 대해 약초밭들의 지대별, 필지별 특성과 '국가적, 지방적 수요'에 맞게 약초 종류를 올바르게 선정해 심을 것과 함께약초 품종별 채취계획을 실효성 있게 세워 나가는데 관심을

돌릴 것을 촉구했다.

신문은 이어 "약초 심기와 채취에 동원되는 단위들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약초심을 면적과 약초 품종을 바로 정해 주고 약초 채취과제를 지표별로 똑똑히 분담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약초 재배단위들에서 약초 비배(肥培)관리와 보관관리를 잘해야 한다면서 특히 김매기와 비료주기, 물주기를 제때에 하고 병해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대책을 충분히 세워 나갈 것을 권고했다.

신문은 각급 보건기관들에 대해 "해당 단위들에서 채취한 약초들을 잘 보관,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부패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